

지붕 위엔 청바지 여인... 전시장엔 강렬한 추상화

June 22, 2020 | 전지현 기자

지붕 위엔 청바지 여인... 전시장엔 강렬한 추상화

C
CULTURE

2020년 6월 22일 일요일
매일경제 A31

최육경 개인전 전경
(사진:제공=국재갤러리)



국내 록 화랑 국제갤러리 K1 재개관展

발간세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지붕 위를 걷는 여자 조각이 2년 만에 돌아왔다.

미국 조각가 조너선 보로프스키 작품 'Walking Woman on the Roof'가 설치된 서울 삼정동 국제갤러리 K1 (1관)이 2년간 보수공사를 거쳐 복원 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오가와 명사, 피트니스, 레스토랑, 카페 공간을 품은 미술품 전시장으로 변신해 지난 18일 재개관했다. 또 다른 전시장 건물인 K2 (2관), K3 (3관)도 지난 1월 중순 문성식 개인전이 끝난 후 코로나19로 휴관해 5개월 만에 다시 관람객을 맞았다. 이연숙 화정이 1982년 인사동에 설립한 국제갤러리는 1987년 삼정동에 K1을 신축해 이전했으며 2007년 K2, 2012년 K3, 2018년 부산점을 차례로 개관하면서 국내 록 화랑으로 자리잡았다. 새단장인 K1 곳곳에는 국제갤러리

와 인연을 이어온 작가들의 미술품이 설치돼 있다. 1층 카페에는 그래픽 디자이너 김연나의 경쾌한 원색 도형 벽화 작업 'Tracing 4-1'과 'Tracing 6-1'이 펼쳐져 있고, 아베 고이치 세르가 운영하는 2층 '디 레스토랑' 천장에는 설치미술가 양혜규의 하얀색 블라인드 연작 '솔트워터집기-22'에르 확장되고 다시 들려진, 열린 기하학적 구조물 2-2, 1-1이 매달려 있다.

3층 피트니스 공간 '웰니스 K (Wellness K)'에는 프랑스 거장 루이즈 부르주아의 붉은색 드로잉 작품 'Femme (여성)', 독일 사진 작가 칸디다 헤퍼가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의 평면 반아메리칸을 촬영한 'Van Abbemuseum, Eindhoven', 영국 웨아트 작가 줄리언 오피의 조각하는 사람들 영상 작품 'Joggers, 5. Coloured' 등을 감상하면서 운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오가와 명사 공간에는 스위스 작가 우고 콘다노네가 화상 과정을 표현한 듯한 작품이 벽면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 컬렉터의 집처럼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데 인터리어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2년간 새단장 후 오픈 요가·명상·피트니스 품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

45세에 요결 화가 최육경 초중기 작품 40여점 펼쳐

K1 재개관 전으로는 45세에 요절한 강렬한 색채 추상화가 최육경 (1940~1986)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미국에 머물던 시기인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중반 작품 40여 점으로 대부분 처음 전시된다. 20~30대 작가의 대담한 실험과 뜨거운 열정이 분출된 작품들로 정화한 재자연도를 알 수 있다. 유화, 아크릴 유화, 목판, 종이, 오일 파스텔, 인크 등 다양한 재료로 여러 기법을 종이에 적용하면서 본인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작업 여정을 감상할 수 있다. 대다수 작품 제목이 '무제'인데 까마귀 이미지를 역동적으로 뒤섞어 놓은 듯한 유일한 캔버스 작품에는 제목 'The Raven of Death and Resurrection (죽음과 부활의 까마귀)'이 붙어 있다.



국제갤러리 K1 (1관) 외관

영향을 받았다. 초록색과 빨간색, 노란색으로 빚어낸 그림상을 풀어헤쳐놓고 알파벳 'HOT DOG'를 써놓은 작품에선 팝아트 흔적을 볼 수 있다. 종이 바스나 채 '숙잠 등 일상의 소재를 캔버스 평면에 덧붙인 작업에서는 골바인 페인팅 영향도 엿볼 수 있다.

또 다른 전시장에는 검은색 인크로 사람과 일상을 정면적으로 펼친 흑백 작품들이 걸려 있다. 시인이기도 했던 작가는 남녀가 키스를 하는 듯한 형상

에 '(종락) 그대의 입술에 따스한 / 은기로 덮여 우리를, / 구태여 이렇 지외 부를것 없고 / 단지 가난한 마음들 / 피스한 은김으로 감싸려이다 / 그대를 향하여 / 월 25일 66년'이라는 시를 써 냈다. 남녀의 관능적인 사랑 행위들을 아련한 흑백으로 그려냈는데도 못터치기듯 쉽게 느껴진다. 동양의 시서화를 연상시키는 대 십자로 자가는 먹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동서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실험이 최육경만의 독자적인 조형 양식의 토대기 됐다.

크린브룩 미술학교를 거쳐 부루클린 미술관 미술학교를 나와 프랭클린 파어슨대 미술과 조교수로 일한 그는 38세에 1978년 15년간 미국 생활을 끝내고 영구 귀국했다. 영남대와 덕성여대 등에서 조각을 양성하며 창작활동을 했으나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전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전지현 기자